

성찬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God Gives Us New Power in Eucharist

빌립보서 4:13-1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6월 3일 설교

¹³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¹⁴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¹⁵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¹⁶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¹⁷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¹⁸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¹⁹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윗의 위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삼하 15장).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기가 차지요. 가장 아끼던 아들이 원수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울입니다. “꿀 좋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참모가 가서 죽여 버리겠다 했지만 다윗은 말렸습니다. 죽일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일 터인데 그런 나를 욕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윗 일행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더 지쳤습니다 (삼하 16:14).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한 마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열 명을 남겨두고 왔는데 아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야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도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하셨으니 지난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 (삼하 12:9-11).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내리셔도 될 벌을 왜 하필 아들을 통해 하셨을까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패륜 아닙니까?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압살롬 군대가 추격을 해 온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얼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합니다. 앉아있을 힘도 없지만 가만있으면 죽으니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몸을 일으켜 다윗과 모든 무리가 밤을 새워 강을 건너는데 새벽이 될 때쯤 모두가 도강을 완료했습니다. 쫓기고 또 쫓겨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가면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이런 형편에 압살롬 군대가 공격해 온다면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끝이겠지요.

다윗의 승리

그런데 그 때 누가 나타났습니다. 압살롬 군대가 아니고 바르실래를 위시한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쓸 침대하고 몇 가지 생활용품에 다윗 일행이 나누어 먹을 여러 가지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정성을 들인 음식이요 또 상당한 돈을 들여 준비한 영양가 풍부한 고급 음식입니다. 다윗 일행이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를 것이라 예상하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으라고 갖고 온 것입니다.

음식이니 먹고 마시면 힘이 나겠지요. 쓰러지기 직전 상태였는데 몸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몸에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힘이 샘솟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으니 그렇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몸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갖은 정성을 들여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오래 전 하신 약속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 후손이 대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압살롬도 내 아들이지만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원수지요. 그렇다면 이 반역은 성공 못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반드시 끝장내시고 왕인 나를 지켜 주실 겁니다.

고급 음식을 먹어 힘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세 사람이 갖고 온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데 겨우

반란 하나로 내가 끝나다니 말이 안 되지요. 힘을 되찾은 다윗은 비로소 전열을 정비하고 반란군과 맞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군대가 반란군을 크게 무찔러 이겼고 반란을 주도한 압살롬도 결국 요압의 창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아의 경험

백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북쪽 왕국에서 선지자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맺힐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니 목이 말라 죽을 것이요, 또 곡식을 기를 수도 없으니 배가 고파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다음 엘리아는 아합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갔지요. 아합만 피하면 그럼 삽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안 죽어도 가만있으면 죽습니다. 살려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으라 하셨습니다. 물은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 먹을 건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얼마 뒤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 사백 오십 인과 싸워 이겼습니다. 아합은 괜찮은데 이제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엘리아는 또 도망을 갔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하였으니 안 죽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 놓는 로렘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이제 목숨을 가져 가 달라 부탁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거의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아합은 건재합니다. 이세벨은 더합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깨우지 마세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는 엘리아를 어루만져 깨우더니 먹으라 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다음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왜 다시 누웠습니까? 죽겠다고는 거지요? 먹으라 하시니 먹긴 먹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자다가 죽겠다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아가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시켜 엘리아를 어루만지며 깨우시고는 일어나 먹으라 하셨습니다. 엘리아 제 마음으로는 “이제 끝이다. 이대로 죽자”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다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누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사십일을 밤낮으로 행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가다듬고 새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준비시키는 일 등을 했습니다.

먹을 것 먹고 밤에는 잠도 자면서 하는 행군도 사십일을 했다면 다들 입을 벌릴 텐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십일을 걸었으니 이걸 설명이 안 되지요. 입만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떡도 숯불구이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음식이 됩니까? 아니지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일이 아직 남았다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쓰겠다고 하시기에, 그런 힘이 난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신뢰, 기대, 이런 것이 있었기에 엘리아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형편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후 11:23-27).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는데 매를 너무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마흔 번 때리면 죽는다 해서 마흔에서 하나를 빼고 때리는데 그런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몽둥이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배가 난파를 당해 한 주간을 죽을 위험 속에 지냈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으며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어느 하나 제대로 써 본 일이 없이는 모자랐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친 평생을 다른 말로 하니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그런 평생이더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슈퍼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일이 잘 안 되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포기할까 유혹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나이도 많이 들어 이제 평생 사역을 거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생각해 보니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그렇게 이 세상 그만 살고 열른 주님 앞으로 가고 싶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제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더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 일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죽는 게 더 낫다는 건 살아 할 일은 다 했다는 뜻도 되고, 이제는 더 할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 사형을 당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개인으로는 지금 죽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합니다. 더 살아서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살 것을 믿는다” 했습니다. 감

옥에서 안 죽고 살아 나가서 복음을 위해 더 일할 수 있게 될 줄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새 힘을 얻은 거지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뭐가 그렇게 바뀌어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이 도착했습니다. 말이 선교헌금이니 그때는 돈으로 보낸 게 아니고 물건을 보내는데 주로 먹는 것과 입는 것,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늘 모자라던 시절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도 제대로 못 먹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음식을 주었으면 얼마나 잘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헌금을 건어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파송해 전달했습니다. 감옥에 홀로 갇혀 힘도 빠지고 의욕도 잃어가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얼굴을 보고 그가 갖고 온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증거를 보았을 때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의 정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바친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면 그건 결국 오기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바울을 챙기게 되었고 바울을 챙기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도 함께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걸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물건,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거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 명령, 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힘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래 전 다윗이 쓰러지기 직전에 세 사람을 통해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면서 다윗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소생시키신 하나님, 엘리야가 도저히 더 못 하겠다고 포기했을 때 처음 까마귀를 보내고 나중에는 천사까지 보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하시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바울, 이제 주님 곁으로 가도 좋겠다 하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하고 음식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다윗과 엘리야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각자 가정으로 일터로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 믿음의 조상들을 공격하였던 마귀가 오늘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잘 싸우지요.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합니다. 너무 벅찬 공격이지요. 몸이 다치고 때로 죽기도 하고 마음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지칩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마귀를 피해 도망을 다니기도 합니다. 도망 다닌다고 놔둘 마귀가 아니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 아닙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인간처럼 우리가 약해졌다 싶으면 기회다 하고 더 달려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사 다윗,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지만 인물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약해지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거리를 주시고 살아갈 이유, 살아갈 뜻을 새롭게 해 주시는데 그 때마다 도구로 삼으신 게 바로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사람은 먹고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뜻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걸 보니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요 살아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일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내라고 그래서 일어서라고 그래서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깨닫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지요. 이래 갖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관두고 싶고, 의욕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애야, 이것 좀 먹어 봐라, 이것도 좀 마셔 볼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괜찮다. 잘 했다. 어제 한 그것 참 잘 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 앞으로 더 해야지? 더 많이, 더 잘 해야지? 그러니 먹고 기운을 좀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 차리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시니까 내 몸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의 음식을 먹고 마셨더니 영혼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게 되고 살아갈 뜻도 새롭게 되찾게 됩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몸의 힘도 얻지만 이 귀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되고 교독문에서 읽은 것처럼 눈물 골짜기도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만찬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험하고 힘들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니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잘 가라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돕겠다 약속하십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달읍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사랑, 은혜, 기대를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활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 온전히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